

요지: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이 드라마의 연극은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다. 어떤 특정한 때에 행해져야 할 역할은 그에 맞게 반복되고 있다. 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질문: 너희 자녀들은 언제 남들에게 영향을 주겠느냐? 아직까지도 부족한 힘이 무엇이나?

대답: 너희가 요가에서 아주 뛰어나면 남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직은 그런 힘이 없다. 오직 기억함으로써만, 너희가 힘을 받는다. 지식의 칼에 기억의 힘이 필요한데, 그것이 여전히 부족하다. 너희 자신을 영혼이라 여기고 계속 아버지를 기억할 때, 너희의 배가 건너갈 것이다. 이것은 1초의 문제다.

음 산티. 영적인 아버지가 여기 앉아서 너희 영적인 자녀들에게 설명한다. 단 한 분만이 영적인 아버지라 불리고, 나머지는 모두 영혼들이다. 그는 지고의 영혼이라고 불린다. 아버지가 말한다: 나 역시 영혼이다, 그러나 나는 지고이며, 나는 진리이다. 오직 나만이 정화자이며 지식의 대양이다. 아버지가 말한다: 나는 너희 자녀들을 세계의 주인들로 만들기 위해 오직 바라트에만 온다. 너희들은 주인들이었다, 그렇지 않느냐? 이제 너희가 이것을 기억해냈다. 바바가 너희 자녀들의 기억을 일깨워주는데, 너희는 처음 황금시대에 와서 84생의 역할을 연기했고, 이제는 마지막에 도달했다. 너희 자신을 영혼이라고 여겨라. 영혼은 불멸하고, 육신은 없어지는 것이다. 영혼은 몸을 통해서 영혼과 대화를 나눈다. 영혼의식 상태를 유지하지 않을 때, 너희는 틀림없이 육체의식을 갖는다. 자기가 영혼이라는 것을 모든 이가 잊어버렸다. “죄 많은 영혼, 자비로운 영혼, 위대한 영혼”이라는 말이 있다. 영혼들은 지고의 영혼이 될 수 없다. 자신을 쉬바라고 칭할 수 있는 영혼은 아무도 없다. 자신들의 육신에 "쉬바"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들은 많다. 이름을 붙이는 것은 영혼이 몸에 들어갔을 때인데, 왜냐하면 그 몸을 통해서 자기 역할을 연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육신을 의식하고, "나는 아무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제 너희는 "그래, 나는 영혼이고, 84생의 내 배역을 연기해왔다. 이제 나는 영혼에 대해서 이해한다. 이 영혼인 나는 사토프라단했고, 이제는 타모프라단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한다. 아버지는 오직 모든 영혼들이 마치 합금이 섞인 금처럼 녹은 후에만 온다. 너희들은 처음에는 순금이고, 그 다음에 은이 되고, 그리고 나서는 동, 그 다음 철이 되어 완전히 변색된다. 다른 누구도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없다. 영혼들은 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모두가 얘기한다. 너희들 안에 어떻게 불순물이 섞이게 되었는지 아버지가 너희 자녀들에게 이미 설명해주었다. 아버지가 말한다: 나는 오직 바라트에만 온다. 나는 너희가 완전히 타모프라단해진 후에 온다. 드라마가 정확하게 행해지는 것처럼 나도 역시 정확한 나의 때에 온다. 어떤 특정한 때에 연기되어야 하는 그 어떤 역할이든, 그것에 맞춰서 되풀이될 것이다; 극히 작은 변정도 있을 수 없다. 저런 드라마는 제한적인 반면, 이 드라마는 무한하다. 이 모든 내용은 대단히 미묘해서 이해를 해야만 된다. 아버지가 말한다: 너희가 어떤 역할을 연기했든 드라마에 의한 것이었다. 인간은 아무도 창조주나, 또는 창조의 시작, 중간, 끝을 모른다. 심지어 현인들과 성자들조차 "네티, 네티(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고 말해왔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창조주를 아느냐고, 또는 창조의 시작, 중간, 끝을 아느냐고 물으면 너희는 재빨리 "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 역시 이것을 지금 이때만 알지, 다른 때는 모른다. 바바는 오직 너희만이 창조주인 그를 알고, 창조의 시작, 중간, 끝을 안다고 설명해주었다. 앗차, 락쉬미와 나라얀의 왕국이 언제인지 저들이 아느냐? 아니다, 그들은 전혀 아무 지식도 없다. 이것은 경이로운 기적이다. 너희들은 너희가 지식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너희들은 또한 아버지의 역할이 단 한번만 행해진다는 것도 이해한다. 너희의 목적과 목표는 락쉬미와 나라얀이 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일단 그렇게 되고 나면, 이 공부는 필요가 없다. 일단 너희가 변호사가 되면, 그게 전부다! 그러므로 너희를 가르치는 아버지를 기억해야 한다. 그는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쉽게 만들어놓았다. 바바는 되풀이해서 말한다: 제일 먼저 너희 자신을 영혼이라고 여겨라. 나는 바바에게 속한다. 전에 너희는 무신론자였고, 이제는 유신론자다. 락쉬미와 나라얀은 유신론자가 된 후에 유산을 차지했고, 너희 역시 지금 그 유산을 차지하고 있다. 너희들은 지금 유신론자가 되고 있다. "유신론자"와 "무신론자" 같은 용어는 오직 이때에만 있다. 그곳에서는 이런 용어들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선 물어볼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의문들이 생기는 것은 여기에서다. 그러므로 너희는 "당신은 창조주와 창조를 아십니까?"라고 묻고, 사람들은 "아니요"라고 대답한다. 아버지가 친히 와서 그 자신을 소개하고, 또한 시작, 중간, 끝의 비밀도 역시 설명한다. 아버지는 무한한 주인, 창조주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 역시 모두 여기로 온다는 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이미 설명해주었다. 아브라함, 그리스도 등이 어떻게 내려오는지, 너희에게 비전으로 보여졌다. 마지막에 이 소리가 아주 널리 퍼지면 그때 그들이 여기로 올 것이다. 아버지가 말한다: 자녀들아, 너희의 몸과 육신의 종교를 모두 버리고 나를 기억해라. 지금 너희는 직접

내 앞에 앉아 있다. 너희 자신을 육신으로 여기지 말아라. "나는 영혼이다." 이렇게 너희 자신을 영혼으로 여기고 아버지를 계속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의 배가 건너갈 것이다. 이것은 1초의 문제다. 사람들은 해방에 들어가고자 반 사이클 동안 신봉을 행한다. 그러나 아직은 어떤 영혼도 집에 돌아갈 수 없다. 아버지는 5천년 전에도 이것을 설명했고, 지금 이것을 다시 설명하고 있다. 슈리 크리슈나는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없다. 그는 아버지라고 불릴 수 없다. 아버지에는 로직, 알로직, 팔로직한 아버지들이 있다. 너희들의 육신의 아버지는 유한하다. 이 세계 너머에서 온 아버지는 무한한 아버지, 영혼들의 아버지이고, 합류시대의 이 아버지는 알로직 아버지라 불리는, 경이로운 아버지다. 아무도 프라자피타 브라마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가 자기들의 고조부라는 것이 그들의 지각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아디 데브, 아담 등에 대해 사람들이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단지 말하기 위한 말뿐이다. 사원(딜와라)에 아디 데브의 형상이 있다. 거기에 가면 너희는 그것이 너희의 기념물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바바가 거기에 앉아 있고, 우리들 역시 거기에 앉아 있다. 여기에서는 아버지가 살아 있는 형태로 앉아 있는 반면 거기에서는 살아 있지 않은 상을 모시고 있다. 천장에 묘사되어 있는 천국도 역시 훌륭하다. 사원에 가본 이들은 이것을 안다. 바바는 지금 살아 있는 형태로 우리에게 라자 요가를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원들이 지어질 것이다. 저 모든 것들이 너희의 기념물이라는 것을 너희가 의식해야 한다. 우리들은 지금 락쉬미와 나라얀이 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었고, 그 다음에 사다리를 내려왔다. 이제 우리는 집에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라마(신)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다음에 라반의 왕국이 올 것이고, 우리는 죄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한다. 지금 이때에 인간은 모두 불순하며, 그래서 이렇게 소리쳐 부르는 것이다: 오 정화자여, 오셔서 저희들을 정화시켜 주소서! 우리의 슬픔을 거두고, 행복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소서. 사람들은 신이 반드시 어떤 형태로 올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그는 고양이, 개, 자갈이나 돌의 형태로 오지는 않는다. 그가 행운의 수레를 타고 온다는 것이 기억된다. 아버지가 친히 말한다: 나는 이 평범한 수레에 들어온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여러 생을 모른다. 너희들은 이것을 이제 안다. 그가 여러 생 중 마지막에 은퇴의 단계에 이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간다. 신봉의 길에서 사람들은 판다바들의 상을 아주 크게 만들어서 보여왔다. 랑군에는 부처상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놓았다. 인간은 그렇게 클 수 없다. 너희 자녀들은 사람들이 요즘 만든 라반의 형상을 보면 재미있다고 느낄 것이다. 나날이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 더 크게 만든다. 사람들이 해마다 태우는 것이 무엇이나? 그는 적이었던 것이 틀림없다. 오직 원수의 인형만 불에 태울 것이다. 앓차, 라반이 누구냐? 그가 언제 너희의 원수가 되었기에 너희가 해마다 그의 허수아비를 불에 태우느냐? 아무도 이 원수에 대해 모른다. 이것의 의미를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가 설명한다: 저들은 라반의 사회, 너희는 라마의 사회다. 이제 아버지가 말한다: 가족과 집에서 사는 동안 연꽃처럼 살며 계속해서 나를 기억해라. 일부는 말한다: 백조와 황새가 어떻게 함께 살 수 있나요? 그러면 갈등이 생긴다. 틀림없이 생길 것이다. 그것을 참아내야 한다. 여러 가지 요령이 있다. 아버지는 똑똑한 흥행사(엔터테이너)라고 불린다. 모든 이가 그를 기억한다: 오, 신이시여, 우리의 괴로움을 거두어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소서! 모든 이를 해방시키는 아버지는 단 한 분뿐이다. 누가 너희에게 모든 개별적으로 설명해주어라. 카라치에서 너희는 한 사람씩 앉혀 놓고 개인적으로 설명해주곤 했다. 너희 자녀들이 요가에 강해지면 너희의 영향력이 퍼질 것이다. 아직은 그런 힘이 없다. 너희들은 공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억함으로써 힘을 받는다. 지식의 칼 안에 기억의 힘이 들어 있어야 한다. 그 힘이 아직은 부족하다. 아버지는 날마다 너희에게 말한다: 자녀들아, 기억의 순례에 머물러라, 그러면 너희가 힘을 받을 것이다. 공부를 통해서 받는 힘은 그리 크지 않다. 너희들은 기억을 통해서 온 세계의 주인이 된다.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은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다. 왔다가 가버린 자들이 많다. 마야는 아주 강력하다. 많은 이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 지식이 아주 좋다고, 행복을 경험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러나 밖에 나가자마자 모든 것이 끝난다. 마야는 그들이 여기에 머물도록 전혀 허락하지 않는다. 일부 크나큰 행복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다: 오호, 바바가 이제 오셨고 우리는 행복의 우리나라에 갈 것이다! 아버지가 말한다: 아직은 왕국 전체가 세워지지 않았다. 지금 현재 너희는 신의 자녀들이며, 그리고 나서 신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도수가 줄어든다. 미터기에 점수가 기록된다; 너희 점수는 이 만큼 줄어들었다. 너희들은 가장 고귀해지고, 그런 다음 내려오면서 점점 도수가 줄어든다. 너희들은 사다리를 내려와야 한다. 사다리에 대한 지식이 이제 너희의 지각에 들어 있다. 너희들이 상승단계일 때는 모든 이에게 유익이 있다. 그리고 나서 점진적으로 하강단계가 있다. 너희들은 사이클을 시초부터 아주 잘 이해해야 된다. 지금 이때에 너희의 단계는 상승하는데,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

다. 사람들이 모든 곳에 편재한다고 부르는 신이 너희를 계속해서 부른다: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귀여운 아이들아"라고, 그리고 너희 자녀들은 계속해서 "바바, 바바!"라고 말한다. 바바가 우리를 가르치러 왔다. 영혼들이 공부를 하고, 영혼들이 행동을 한다. 이 영혼인 나는 평화의 화신이다. 나는 이 몸을 통해서 여러 행위를 한다. "평화롭지 못함"이라는 말은 슬픔이 있을 때 사용된다. 그렇지만 평화는 우리의 본래의 종교다. 많은 사람이 마음의 평화를 달라고 청한다. 오! 그러나 영혼들 자신이 평화의 화신이며, 평화의 지역이 그들의 고향이다.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잊어버렸다. 너희들은 평화의 지역의 거주자들이었다. 너희들이 그곳에서 평화를 받을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한 왕국, 한 종교, 한 언어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나의 카스트, 하나의 종교, 한 분의 신"이라고. 정부 역시 신은 한 분 뿐이라고 글을 쓴다. 그렇다면 저들은 왜 그가 편재한다고 말하는 것이냐? 단 한 분인 신을 믿는 이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 너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써야 한다. 락쉬미 나라얀의 그림을 만들 때, 그 그림 위에 "황금시대에 이분들의 왕국이 있었을 때는 한 분의 신, 단 하나 신인 종교뿐이었습니다"라고 써라. 그렇지만 인간들은 아무 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그만큼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오직 우리 브라만 가문에 속하는 이들만이 신경을 쓸 것이다. 너희들 외에는 아무도, 아무 것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바바가 말하는 것이다: 그들과 개별적으로 앉아서 설명해주어라. 그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이해하도록 신청서 양식에 기입하게 해라, 왜냐하면 일부는 어떤 이를, 나머지는 또 다른 누군가를 믿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그들 모두에게 한꺼번에 설명할 수는 없다. 각자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해 너희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이다. 우선 처음에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아라: 브라마 쿠마르, 쿠마리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일이 있나요? 프라자피타 브라마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 이름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당신은 프라자피타 브라마의 자녀가 아십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당신 역시 이런데, 다만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고 것 뿐입니다. 적절한 요령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앓차.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자녀들에게,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밥다다가 사랑과 기억과 아침인사를 보낸다.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에게 나마스떼라고 말한다.

실천 요지:

1. 사원에 가면 언제나 신상들이 모두 너희의 기념물이라는 의식을 지녀라. 우리는 지금 락쉬미와 나라얀처럼 되고 있다.
2. 가족과 집에서 사는 동안 연꽃처럼 지내라. 백조와 황새가 함께 살 경우 그들은 대단한 외교적 수완을 지니고 살아야 하며, 또한 많이 참으며 수용해야 한다.

축 복: 모든 문제에 작별을 고하고 해결책의 화신이 되는 예식을 축하해라.

너희들이 완전하고 완성된 단계에 안정해 머물 때 해결책의 화신인 영혼들의 염주가 준비될 것이다. 완성의 단계에서는 문제들이 어린 아이의 놀이로 경험된다, 즉 그것들이 끝난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를 가진 자녀든 아버지 브라마 앞에만 오면 자기의 문제에 관해 말할 용기를 못내고 그 문제들을 잊어버렸다. 마찬가지로 반 사이클 동안 문제에 대해 작별을 고하는 축하예식이 있도록 너희 자녀들도 해결책의 화신이 되어야 한다. 변화가 곧 세상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다.

슬로건: 끊임없이 지식을 되새기는 자들은 마야의 어떠한 유인으로부터도 보호된다.

*** 음 산티 O M S H A N T I ***